

개화기의 일본어 교과서에 관한 연구

박 성 희*

vk1233@empal.com

차 례

1. 들어가며
2. 개화기의 일본어 교과서
3. 『일어독본(日語讀本)』과 『독습일어정칙(獨習日語正則)』의 비교 분석
4. 마치며

요 지

本稿は、開化期の韓国において編纂された日本語教科書を分析したものである。

教科書は、開化期に施行された教育政策に深く係わっており、当時の教育目的や内容を把握することのできる資料である。また、この時期から教科書に基づく教育が始まっていることから、日本語教育の歴史を調べるためには、その当時出版された教科書を検討する必要がある。即ち、開化期は新しい教科書が編纂された創始期であり、その時期に編纂された教科書が、現在の教科書の編纂に少なからぬ影響を与えていることを考えても、韓国における日本語教育の実態を把握するための、重要な資料的価値を有していると言える。本稿の研究目的は、この開化期に編纂された教科書を分析し、当時の日本語教育の目的や内容の差異を考察することにある。

開化期に出版された日本語教科書は、大きく分けて、学部で編纂された教科書と民間人が出版した教科書とに分けられる。前者は、韓国人の思考や価値観の同化を目的とし、学部が計画的に編纂したものであり、後者は、乙巳条約以来、国権喪失の危機の中で民族的自覚心を引き起こそうと、民間人が自発的に編纂したものである。

結論的には、開化期の日本語教科書は、日本語を教育するための教材であるという点においては同様であるが、当時の時代状況により著者別に相反した教育内容で編纂されたことに注目すべきである。即ち、日本は韓国を植民地化しようとした意図が全面に表れ、教育内容にも反映された反面、韓国ではこうした日本の教育政策に対応し、自主独立や民族意識に関する本文の内容を選別し、提示したのである。このような教科書の本文内容に表れる相反した面は、開化期当時の日本語教育の性格を特徴づける要素だと言える。

키워드 : 개화기, 일본어 교과서, 일어독본, 독습일어정칙

1. 들어가며

본고는 개화기(1891-1910) 한국에서 편찬된 일본어 교과서를 분석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갑오개혁을 전후로 일어학교가 전국 각지에 설립·운영되는 등 일본어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어떠한 학생이, 누구로부터, 어떠한 교재와 교과과정에 의해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사항만 알려져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개화기의 일본어 교육이 근대 일본어 교육의 시발점으로서 한국에서의 일본어 교육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본어 교육에 대한 연구는 크게 교사와 학습자, 교육기관, 교과과정, 교과서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특히 일본어 교육을 위해 사용된 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교과서는 개화기에 시행된 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당시의 교육 목적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며, 이 시기부터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일본어 교육 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¹⁾.

개화기에 출판된 일본어 교과서에 대해서는 아직 그 종류조차 확실하지 않으며 지금까지의 연구는 교과서 자체에 대한 소개와 체제 면에 국한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개화기에 사용된 교과서의 본문 내용을 분석하여 당시의 일본어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보는 동시에 관립학교와 사립학교에서 사용하던 교과서 내용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으로는 일제(日帝)가 통감부를 설치한 뒤 발행한 『일어독본(日語讀本)』과 민간인이 편찬한 『독습일어정칙(獨習日語正則)』을 자료로 하여 이들 두 교과서간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2. 개화기의 일본어 교과서

1891년에 일어학당이 설립되고 근대적인 일본어 교육이 시작되자 일본어 교과서가 상당수 편찬되었다. 교과서가 편찬된 당시의 시대 상황 및 교과서의 종류에 대해

1) 康允浩(1973) 『開化期の教科用図書』, 教育出版社, p.3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을사조약이 체결되기 직전인 1905년 10월 일본 내각회의에서는 한국에 대한 통치 방침을 결정하였는데, 교육에 관하여는 「교육은 한국 신민으로 하여금 일본에 감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教育は韓国臣民をして日本に感化せしむるを主眼とする。)²⁾」라고 하여 한국에 대한 교육 방침을 동화교육에 둘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따라 諸 학교령이 시행되었고 교과서 편찬 작업이 추진되는 등 학교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통감부 설치 이후 일본인 학정참여관은 취임 직후부터 교과서 편찬 작업에 착수하여 일본색이 짙은 교과서 『일어독본(日語讀本)』을 편찬하는 등 교육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였다. 일본이 당시 한국에서 일본어로 된 교과서 편찬을 어느 정도 중요시하였는가는 1905년 11월 학부 본청에 근무한 일본인 4명 가운데 통역관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인 시데하라 다히라(弊原坦, 학부 학정참여관)와 와타세 쓰네토시(渡瀬常吉, 학부 교과서 편집촉탁),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 학부 교과서 편집촉탁)가 모두 교과서 편찬 관계자였다는 점을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³⁾. 이로써 식민지 준비 과정의 일환인 교과서 편찬 작업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한편, 일본에 의한 식민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자 한국에서는 자주 독립과 민족계몽을 지향하는 사립학교가 전국 각지에 설립되었다. 기존의 사립학교에서는 개교 당시에는 가르치지 않았던 일본어를 정규과목으로 채택하는 등 일본의 간접 통치하에 놓인 상황에서도 일본어를 무조건 배척하지 않고 익히고 배워서 민족적 자각심을 잃지 않도록 하였다⁴⁾. 교육구국운동을 주도한 학회나 애국계몽단체도 마찬가지로 반일적(反日的) 성향을 갖기는 하였지만, 일본어 교육 자체를 배척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어 학습서를 발간하는 등 일본어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⁵⁾.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1900년 이후에 사용된 일본어 교과서는 일본에서 발행된 것과 구한국(旧韓国) 학부가 발행한 것, 학부검정(学部檢定) 교과서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일본에서 발행한 것을 들여다 쓴 것으로는 『심상소학독본

2) 『教育時論』 686号, 「韓国の教育如何」 1904年 5月 5日, pp.1-2

3) 鄭在哲(1985) 『日帝의 對韓国植民地教育政策史』, 一志社, pp.208-210

4) 편무진(2003) 『개화기 한국에서의 일본어교육과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 『개화기 한국과 일본의 상호교류』,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pp.85-86

5) 稲葉繼雄(1997) 『旧韓末「日語学校」の研究』, 九州大学出版部, p.34

『尋常小学讀本』(1904년)이 있으며 이는 일본에서 일본인 소학교 학생을 위하여 개발된 것이었다. 구한국(旧韓國) 학부가 발행한 것으로는 『일어독본(日語讀本)』(1907년)과 『고등소학독본(高等小学讀本)』(1907년) 및 『심상소학신체독본(尋常小学新体讀本)』(1907년) 등이 있다. 민간인이 구한국(旧韓國) 학부의 검정을 받아 간행한 교과서로는 박중화(朴重華)가 저술한 『개정정선 일어대해(改正精選日語大海)』(1909년)와 『고등일본독본(高等日文讀本)』 및 정운복(鄭雲復)이 저술한 『일어대성(日語大成)』(1910년) 등이 있다. 각급 학교에서 사용된 교과서로는 이들 이외에도 더 많은 것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들 교과서가 사용된 교육기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1905년 이후의 관·공립학교는 대부분 일본의 대한 식민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변질되어 있었으며, 사립학교는 국권회복을 목표로 하여 통감부의 교육정책에 저항하고 민족 교육을 전개하였던 기관이었다. 이 때문에 교과서 사용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었는데 관·공립학교와 일본인이 설립한 학교에서는 일본인이 편찬에 관여한 학부 발행 교과서가 사용되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일어학교에서는 『독습일어정칙(獨習日語正則)』 등 학부 검정교과서가 사용되는 일이 많았다. 본고에서는 학부 발행 『일어독본(日語讀本)』과 민간인 발행 『독습일어정칙(獨習日語正則)』을 대상으로 그 내용과 구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당시의 일본어 교과서가 의도한 교육내용이 무엇이었는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일어독본(日語讀本)』과 『독습일어정칙(獨習日語正則)』의 비교 분석

『일어독본(日語讀本)』과 『독습일어정칙(獨習日語正則)』을 중심으로 각 교과서의 형식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3.1 체재와 구성면

우선 학부(學部) 편찬의 『일어독본(日語讀本)』과 민간인 편찬의 『독습일어정칙(獨習日語正則)』

『習日語正則』의 체재 및 표기법 등 형식적인 사항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부(學部) 편찬의 『일어독본(日語讀本)』은 한국에서 일본인이 발행한 최초의 일본어 교과서이다. 1907년 동경의 오후라쇼텐(大倉書店)에서 초판이 간행되었으며, 4년간의 보통학교 교과과정에서 1년에 2권씩 사용할 수 있도록 총8권이 발행되었다.

본문에서의 표기체계를 살펴보면 제1권은 한자와 가타카나로 입문하였으며, 제3권부터 히라가나가 사용되기 시작하여 한자와 병용되었다. 제1권부터 책상(机), 연필(鉛筆)과 같이 저학년의 학생들에게 비교적 난해한 한자어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당시 보통학교의 학생들이 전통적인 초등 교육기관이었던 서당에서 이미 한자어를 습득하였음을 고려하여, 한자어를 매개어로 한 일본어 읽기교육이 행해졌던 것이라 할 수 있다⁶⁾. 각 권의 가나사용법은 제1권과 제2권은 역사적 가나사용법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제3권부터 종래의 복잡했던 것을 배제하고 발음대로 표기하는 표음적 가나사용법을 채택하였다.

다음으로 정운복(鄭雲復)이 저술한 『독습일어정칙(獨習日語正則)』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편찬된 일본어 교과서로서⁷⁾, 1907년 9월 경성 소재의 광학서포(廣學書舖)에서 초판이 발행되었다. 본문내의 표기형식은 가타카나와 한자로 표기하였으며 역사적 가나사용법을 채택하였다. 단원 구성은 총24장, 268면이며 각 장의 첫 머리에는 해당 어휘의 한자 표기와 가타카나 독음이 병기(併記)되어 있고, 이어 개별적인 일본어 문장과 국한문의 대역문(對訳文)이 나열되어 있다. 위의 교과서의 체재 및 형태적인 사항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에서와 같이, 두 종류의 교과서 모두 본문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강독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으로 보아 읽기 능력이 상당히 중요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본문의 형식이 문자로 표현된 문자 언어에 중점을 두고 있어 말하기·듣기에 대한 교육보다는 본문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위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개화기 당시의 일본어 교육이 실용을 위주로 한 말하기에 비중을 두었음을 고려할 때, 교육기관에서 사용한 위의 교과서는 당시의 교육 흐름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⁸⁾.

6) 佐藤由美(2000) 『植民地教育政策の研究-朝鮮・1905~1911-』, 龍溪書舎, p.109

7) 桜井義之(1974) 「日本人の朝鮮語学研究-明治期における業績の解題-」(二) 『韓』 3-9, p.90

8) 韓中瑄(1997) 「開化期日本語教育に関する考察-学部編纂『日語讀本』を中心として-」 『日本学報』 第38輯, 韓国日本学会, p.146

〈표1〉 일본어 교과서의 형태적인 사항

항목	『일어독본(日語讀本)』	『독습일어정칙(獨習日語正則)』
대역문	일본어 본문	한·일어 대역형식
가나사용법	역사적·표음적 가나사용법	역사적 가나사용법
표기문자	가타카나·한자→히라가나·한자	가타카나·한자
언어능력	읽기 중심 (강독)	읽기 중심 (강독)
문장종류	설명문, 논설문 형식	설명문, 논설문 형식
문법설명	없음	있음
회화문	없음	있음
삼화	있음	없음
사용대상	학교교육(보통학교, 관립한성외국어학교)	학교교육(사립 고등학교)초학자용 독습서

한편, 본문에 나타난 문장의 형식은 설명문이나 논설문 형식으로 여기에는 저자의 관점이나 주장이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의 일본어 교육이 설명이나 논증 형식의 기술방식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교육 내용이 설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본문 내의 체제 형식을 살펴보면 『독습일어정칙(獨習日語正則)』의 경우 일본어 예문의 좌측에 국한문 혼용문을 제시한 상하 2단 한·일어 대역형식의 세로쓰기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학부 편찬의 『일어독본(日語讀本)』은 대역문 없이 일본어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어독본(日語讀本)』의 위와 같은 구성 방식은 1905년 이후에 도입된 직접법이 교과서 상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당시 대역문이 없는 교과서를 사용하여 직접법의 형태로 일본어를 가르치는 것은 일본어 교육현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 이때 단순히 어학을 가르친다는 관점에서 직접법이 도입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사고와 정신을 체득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접법이 도입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⁹⁾.

3.2 내용면

위에서 살펴본 일본어 교과서의 본문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각각의 내용적 특징에

9) 松永典子(1999) 「日本軍政下の占領地における直接法と速成法-軍政下マラヤの事例を通して-」 『日本語教育』 103, 日本語教育学会, pp.85-86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위의 교과서는 일본어를 교육하기 위한 교재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인하여 저자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 목적으로 편찬된 것이므로 위의 교과서의 내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일 간의 상반된 교육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2.1 『일어독본(日語読本)』의 내용 분석

우선 학부에서 편찬한 대표적인 일본어 교과서인 『일어독본(日語読本)』을 중심으로 그 본문 내용을 분석하기로 한다.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소재 가운데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된 특징적인 내용을 항목별로 분류하면, 먼저 한국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다룬 단원과 일본의 생활 양식 및 문화를 소개하는 단원, 한국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한 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의 단원에서 다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다룬 단원

『일어독본(日語読本)』의 각 권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과 관련된 부정적인 표현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 アル国ノ馬ワ大キクテ、ズイブン強イケレドモ、韓国ノ馬ワ小サクテ弱ウゴザイマス。
(제5권 14과 「馬ト牛」)

(2) 諸君わなせ度度韓国に洪水がおこるか知っていますか。韓国内を旅行してごらん下さい。何処へ行つても山にわ殆んど木がありません。
(제6권 제5과 「洪水の原因」)

(3) ドイツあたりでわこんなふうですから、公園の木を折ったり、道で小便をしたりするものわありません。わが国でわ、人の家のくだものを取ったり、町で大便をしたりするものがあります。恥ずかしいことわありませんか。
(제6권 제9과 「ドイツの子供」)

위의 (1)의 예문에서는 한국말의 왜소함에 대해, (2)과 (3)의 예문에서는 한국의 자연현상 및 생활습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그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어독본(日語読本)』에서는 한국인의 생활양식과 습관에 대해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위의 예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5권에서부터 시작하여 제6권에 이르기까지 고학년의 교재를 중심으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 한국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한 단원

『일어독본(日語讀本)』에는 위와 같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단원 이외에도 일본의 세력을 과시하는 내용을 통해 한국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고자 한 단원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특히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을 제재(題材)로 한 단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예문은 다음과 같다.

- (1) 清国がむやみに兵隊を送るなら、日本でも兵隊を送つて、韓国に住んでいる日本人を保護すると言つて、兵隊を出しました。これが日清戦争の初です。

(제8권 제4과 「日清戦争」)

- (2) 日本わ小さな国ですけれども、早くから新しい学问をしたから、強い国になりました。日本の海軍わ大変強くて、日清戦争わ、清国の軍艦をすっかり撃沈めたり、分捕つたりしました。又、日露戦争でも、ロシヤのたくさんの軍艦を、大底分捕つたり、衝沈めたりしました。

(제8권 제5과 「隣国」)

- (3) 朝鮮人が行ってからいろいろな家などができて、奈良わ段々立派な都になりました。奈良え行つてごらんなさい。日本え雇われていつた朝鮮人の内で、その後、また帰つてきた人もありましたが、日本の人になつてしまつたものも、大勢ありました。

(제7권 제4과 「朝鮮と日本との交通」)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1)의 예문에서는 청·일전쟁의 발발 배경에 대해 일본측의 입장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2)의 예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일본의 세력을 과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의 행동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긍정하는 동시에 일본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의 예문에서는 조선인의 도움으로 나라(奈良)라는 도시가 발달하게 되었다는 역사적 배경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결국 일본이 긍정하는 것은 고대의 조선이며 그것도 ‘고용하다(雇う)’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한국과 일본이 주종관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¹⁰⁾. 이와 같이 『일어독본(日語讀本)』은 일

본의 세력을 과시하는 본문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고 이를 합리화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일본의 문화를 소개하는 단원

다음으로 일본의 문화와 사정(事情)에 대해 소개한 단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어독본(日語讀本)』의 제7권에서는 「일본(日本)」(제3과), 「조선과 일본의 교통(朝鮮と日本との交通)」(제4과), 「일본과 중국과의 교통(日本と支那との交通)」(제5과), 「일본의 관청(日本の府庁)」(제6과), 「신바시역(新橋のステーション)」(제7과), 「동경(東京)」(제14과) 등과 같이 일본의 사정(事情)에 대해 소개하는 단원이 나타난다. 즉, 일본의 우편과 교통, 지역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룸으로써 일본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고학년의 교재일수록 등장인물 가운데 일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데, 이는 일본인상과 일본인의 생활습관을 중심 제재로 제시하여 일본적 가치관으로 동화시키고자 한 교육 목적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 (1) 一人ワ儉約シテ、金持ニナリマシタ。金持ニナルノニワ、働イテ儉約スルノガ一番デス。 (제5권 제6과)
- (2) 身体ヲ、汚クシテ居ルト、人ニ、嫌ワレマス。汚イ身体デ、人中エ、出ルノワ、失礼デ、ゴザイマス。(中略)人ワ、度々、湯ニ入ツテ、身体ヲ、清潔ニシナケレバ、ナリマセン。 (제4권 14과)

위의 (1)과 (2)의 예문에서는 절약이나 근면, 청결 등과 같이 일본의 근대 도덕을 형성하는 주요 내용을 선별하여 제시함으로써 일본의 언어와 문화, 생활양식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즉, 일본어 교육을 통해 일본의 문화를 보급하고, 일본의 가치관과 정신을 한국인에게 동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일어독본(日語讀本)』은 단순히 교과서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식민지 준비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인을 일본에 동화시키고자 한 목적이 교과서의 본문 내용에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10) 佐藤由美(2000), 前掲書, pp.107-108

3.2.2 『독습일어정칙(獨習日語正則)』의 내용 분석

다음으로 통감부 시기 일본의 교육정책에 대응하여 한국인이 자율적으로 편찬한 교과서인 『독습일어정칙(獨習日語正則)』을 중심으로 그 본문 내용을 분석하기로 한다. 본문 내에서 다룬 소재 가운데 시대 상황과 관련된 특징적인 내용을 항목별로 분류하면 자주 독립 및 민족의식에 관한 단원과 군사 및 효행, 교육의 중요성과 관련된 단원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각 단원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주 독립 및 민족 의식과 관련된 단원

본문 내에 정치와 관련된 목차 항목에서는 국민의 의무와 조선의 자주 독립 등 국민적 일체감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을 선별하여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 (1) 我が國ノ獨立權ヲ完全ニ恢復スルコトハ皆様ノ責任ト云フ外仕方ガアリマセヌ。(p.122)
- (2) 國家ノ事ニハ命掛テ遣ラナケレバナリマセヌ。(p.127)
- (3) 今度ノ日露戰爭ニハ露西亞ガ敗ケテ樺太島ヲ半分程日本ニ讓リ渡シマシタ。(p.24)
- (4) 地方ニ義兵ガ起ツタト云フ急報ニ接シテ一個中隊ノ騎兵ヲ派遣シマシタ。(p.120)
- (5) 先日軍部大臣ヲ狙撃シタ兇漢ハ其場テ捉ヘマシタ。(p.64)

개화기에 민간인에 의해 편찬된 교과서에는 위의 (1)과 (2)의 예문과 같이 국가와 애국심, 충의 등 민족적 독립심을 일깨워주는 내용의 예문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3)과 (4), (5)의 예문에서는 러·일전쟁과 의병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본문의 소재로 삼아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화기에 민간인이 주도적으로 편찬한 교과서의 경우, 자주 독립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민족 의식을 고취하고 궁극적으로 민족적 자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한 것이다.

한편, 위의 교과서는 국권회복이나 자주 독립과 관련된 반일적인 소재의 본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인해 1908년에 시행된 학부(學部)의 도서검정규정(圖書檢定規程)에 의하여 교과서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고 발매금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점을 보더라도 학부(學部)가 실시하고자 하였던 교육이 한국인이 시행

하였던 교육과 그 목적에 있어서 명백히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군사 관련 단원

애국계몽이나 자주 독립과 관련된 예문 이외에도 본문 내에 군사 용어나 군사 행정 등 군사와 전쟁에 관련된 단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 (1) 戦争ト云フモノハ勝ツカ敗ケルカドツチカデス。(p.122)
- (2) 将カ部下ヲ指揮シテ戦地ニ赴クノヲ御覽ナサイ誠ニ国家ノ干城デス。(p.117)
- (3) 兵士ヲ養成スルノハ国土ヲ防衛スル為デアリマス。(p.117)
- (4) 韓国駐劄軍ハ多分日露戦争ノ時カラ来テ居つたらしい。(p.112)

위의 예문과 같이 군사 및 전쟁과 관련된 내용은 특히 개화기에 출판된 학습서에 상당수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위의 (1)과 (2)의 예문과 같이 군인의 용맹성이나 충성심이 충군애국과 연관되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위의 (4)의 예문에는 러·일 전쟁 등 전쟁에 직면한 사회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당시의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다. 이처럼 일본어 교육을 목적으로 한 교재에 군사 및 전쟁 관련 소재가 포함된 것은 그만큼 당시의 시대 상황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것이며, 아울러 불안정한 시대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 하겠다.

3) 효행 관련 단원

개화기에 민간인에 의해 편찬된 교과서에는 유교적 덕목이 강조되어 효행 및 덕성 함양과 관련된 예문이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 (1) 子タル者ハ親ニ孝行ヲ尽サナケレバナリマセヌ。(p.55)
- (2) 父母ニ孝ヲ尽シ兄弟相愛シ夫婦相和シ朋友相信ズル。(p.318)
- (3) 自分ヨリ目上ノ人ニハ丁寧ナ言葉ヲ使ハ子バナリマセヌ。(p.67)
- (4) 親ノ言フコトヲ聞カ子バ不孝ニナリマスカラ御慎ミナサイ。(p.54)

위의 예문에서는 언어행동과 태도 및 의복에 관한 전통적인 덕목 내지는 부자(父子), 남녀, 형제간에 지켜야 할 예의범절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도덕성을 함양

하고 인격형성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교훈적인 내용이 교과 내용으로 선정되어 있는 것은 1905년 을사조약 이후 국내외로 어려운 시대상황 속에서 민족적 자각심과 민족의식을 일깨우고자 하였던 저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 교육 관련 단원

을사조약 이후 일본의 침략권이 강해짐에 따라 교육구국운동의 일환으로 학문이나 교육의 중요성 및 신문물을 소개하는 단원이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 (1) 国權ヲ恢復シヤト思フナラ先ヅ人民ヲ教育スル方針ヲ御取りナサイ。(p.117)
- (2) 国際競争ノ熾シナル時代ニ際シテ軍備ノ拡張ハ成程急務テナインデハナイテ 스케ドモ其ノ兵力ノ強弱ハ矢張り知識ノ進歩程度ノ如何ニ關係スルコトデスカラ先智力ノ開發ニ重ヲ置カナケレバ成リマセン。(p.207)
- (3) 本年度ニハ京成、平壤等ニ測候支所ヲ設立シマシタ。(p.110)
- (4) 気象台ハ気象ヲ觀測ル処デアリマス。(p.122)

위의 (1)의 예문에서는 국권회복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2)의 예문에서는 국제경쟁이 활발한 시대에 병력양성의 주요 요소로서 지식의 진보와 지력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즉, 나라의 독립을 지키고 자주적인 근대화를 이룩하기 위해 학문을 연마해야 한다는 자강의 목적과 함께 근대교육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3)과 (4)의 예문과 같이 당시 신문물의 유입과 관련하여 측후기나 관측소 등 새로운 과학 문명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도 제시되어 있다. 이는 계몽주의 사상에 근거하여 교육을 통한 자강과 근대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주력하고자 하였던 당시의 교육 목적이 교과 내용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4. 마치며

이상과 같이 본고에서는 개화기에 출판된 일본어 교과서의 내용을 고찰하였다. 본고를 통하여 밝혀진 것은 다음과 같다.

개화기에 출판된 일본어 교과서는 학부(學部)에서 편찬한 교과서와 민간인이 저술한 교과서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통감부 설치 이후 한국인의 사고와 가치관을 일본식으로 동화시킬 목적으로 일제(日帝)가 개입하여 편찬한 교과서이며, 후자는 을사조약 이후 국권 상실의 위기 속에서 민족의식 고취 및 민족적 자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편찬한 교과서이다. 그 중 학부(學部)에서 편찬한 교과서인 『일어독본(日語讀本)』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거나, 일본의 세력을 과시하는 내용을 중심 제재로 하여 한국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고학년의 교재를 중심으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일어독본(日語讀本)』은 단순히 교과서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식민지 준비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인을 일본에 동화시키고자 한 목적이 교과서의 본문 내용에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반면 통감부 시기 일본에 대응하여 한국인이 자율적으로 편찬한 교과서의 경우,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국민의 의무와 자주 독립을 강조하는 등 국민적 일체감을 갖게 하기 위한 교과 내용으로 선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교육구국운동의 일환으로 교육을 통한 자강과 근대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주력하였던 개화기 지식인들의 의도가 교과서의 본문 내용에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개화기의 일본어 교과서는 일본어 교육을 위한 교재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 저자에 따라 그 교육 내용에 있어서 명백히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교과서의 본문 내용에 나타난 상반된 면이 당시의 시대상황과 관련하여 개화기의 일본어 교육의 성격을 특징짓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본고는 아직 남겨진 과제가 적지 않다.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일본어 학습서 전부를 다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화기의 전체적인 교육 모습을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할 수 없다. 금후 누락된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확대함으로써 개화기의 일본어 학습서에 관한 전체상을 규명해 나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 康允浩(1973) 『開化期の教科用図書』, 教育出版社, p.3
- 鄭在哲(1985) 『日帝의 對韓國殖民地教育政策史』, 一志社, pp.208-210
- 편무진(2003) 「개화기 한국에서의 일본어교육과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 『개화기 한국과 일본의 상호교류』,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pp.85-86
- 韓中瑄(1994) 「開化期日本語學習書小考」 『日語日文学研究』 第25輯, 韓國日語日文学會 p.158
- _____ (1997) 「開化期日本語教育に関する考察-学部編纂『日語読本』を中心として-」 『日本学報』 第38輯, 韓國日本学会, p.146
- 稻葉繼雄(1997) 『旧韓末「日語学校」の研究』, 九州大学出版部, p.34
- 桜井義之(1974) 「日本人の朝鮮語学研究(Ⅱ)-明治期における業績の解題-」 『韓』 3-9, 韓國研究院, p.90
- 佐藤由美(2000) 『殖民地教育政策の研究-朝鮮・1905~1911-』, 龍溪書舍, pp.107-109
- 松永典子(1999) 「日本軍政下の占領地における直接法と速成法-軍政下マラヤの事例を通して-」 『日本語教育』 103, 日本語教育学会, pp.85-86
- 山田寛人(1998) 「朝鮮語學習書・辞書から見た日本人と朝鮮人-1885年~1945年-」, 『朝鮮学報』 169